***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3. 6. 13.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13일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차세대 광통신 기술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 왼쪽 세 번째부터)과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5G·6G용 멀티코어 광섬유 개발 추진**  **■ 한국광기술원과 ‘차세대 광통신 기술 협력’ MOU**  **■ 데이터 전송량 기존 4배 이상, 초고속 통신케이블 시장 선점**  **■ KT서브마린 인수 등 광통신 사업 강화**  LS전선이 5G·6G 통신용 멀티코어(Multi Core) 광섬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섰다.  LS전선은 한국광기술원(KOPTI)과 ‘차세대 광통신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멀티코어 광섬유 개발을 시작으로 광통신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멀티코어 광섬유는 데이터 전송량이 현재 1코어 광섬유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차세대 제품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는 광케이블의 심선으로 사용된다. 현재는 1코어가 사용되는데, 코어의 수에 비례해 데이터 전송 용량이 늘어나 통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은 “멀티코어 광섬유는 유럽과 일본의 극소수 업체만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높다”며,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표준화 참여를 통해 차세대 통신케이블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초고속 통신 인프라 건설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케이블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저 광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KT서브마린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